

잘 고른 불서 한권 인생이 달라집니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이면 불서를 선물하려는 불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자들이 고르는 책은 그 해의 '베스트셀러'로 집중된다. 막상 책을 선물하려고 하면서도 누구에게 어떤 책을 선물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좋은 책'이나 '많이 팔리는 책'만을 찾지 말고,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자녀나 친구, 가족, 이웃간에 '맞춤 불서'를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책을 선물로 주고받는다면 주는 이나 받는 이의 기쁨이 두 배로 커질 것이다.

#성경과 맞먹는 권라보자

새책 불자 키우기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불자들은 자녀 불교교육에 대한 열성이 타 종교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불서 또한 그리 다양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림이나 구성이 돋보이는 불서들이 부쩍 많이 선보이고

있다. 잘 고른 불서 한 권이 내 자녀의 종교관과 인생관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자녀라면 친숙한 그림과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통해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책이 좋다.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의 과정을 은화한 그림으로 펼쳐 보이는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나 어린이 불서의 고전인 <정재봉사의 동화 <오세암> 등이 대표적이다.

초등학교를 위한 불서로는 부처님 일대기와 불교설화, 고승 전기, 경전 해설서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이 선보이고 있다. <엄마 따라 절에 가자> <엄마랑 아빠랑 절에 갔어요> 등의 책을 통해 절에 다닐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스스로 익히게 해 보는 것도 좋다.

청소년기의 책읽기는 바른 가치관 형성과 지적 소양을 기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 양질의 불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입시 중앙감 등으로 불안정한 정서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 준다. 중·고등

학생 자녀에게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책과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명상서적,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안겨주는 불교유화 등을 선물해 보자.

전국교법사단이 의욕적으로 펴내고 있는 청소년 불서 <서두를 때 서두르면 느낄 때는 얼마든지 느려도 좋다>와 <물, 뱀이 마시던 뚝, 소가 마시던 우유> <대자유인 선사> 등도 눈여겨 볼 만하다.

#성인에겐 근기에 맞게

절에는 다니지만, 불교는 잘 모른다? 불자라고 자부하면서도 막상 누군가 불교에 대해 물으면 '꿀 먹은 벼어리'가 되는 경험을 해 본 불자들이 있을 것이다.

불자라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의 생애조차 제대로 모른다면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없다. 부처님 생애를 소설이나 전기형식으로 소개하는 책과 불교사의 흐름을 짚어주는 책을 선물한다면, 두고두고 곁에 두고 읽는 '애장 불서'가 될 것이다. 불교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친지나 이웃에게는 가벼운 에세이나 소설을 권해보자. <선 너는 누구냐>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바라, 꽃이다> 등은 언제 어디서든 잠잠이 큰스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편집돼 있다.

지난해 세간의 큰 인기를 모았던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의 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출가>와 절 수행으로 신체적 장애를 딛고 일어난 동양화가 한경혜씨의 에세이 <오세암>, 우리나라 차문화의 증흥조인 조의 선사를 소설로 되살린 <초의> 등은 불자가 아니라도 큰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불교에 대한 관심이 수월 열풍이 사그라들 줄 모른다. 하지만 무턱대고 좌선을 한다고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닐 터. '교의발전(敎外傳)'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로 읽히지 않기 위해서는 수행의 바른 길을 알려주는 책이 필요하다. 곁에 두고 언제든 꺼내 참고할 수 있는 수행 안내서를 선물해보자.

여수영 기자 snoopy@buddhapia.com



"어떤 불서를 선물할까?"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이면 불서를 선물하려는 불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로의 근기에 맞는 책을 주고 받는다면 주는 이도, 받는 이도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이다. 사진=박재현 기자

부처님오신날 선물하기 좋은책

내아이 불서 심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유·동·초·중·고·대	불교가 뭐예요?	불교 좀 더 알고 싶어요	수행의 향기				
> 미취학 아동 <곰미>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곰미돌부처>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곰미 판다의 깨달음>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나쁜 녀석>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부처님의 날들이>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동승과 노승>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동승의 크리스마스>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마음이 속속 크는 불교 이야기>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성자가 된 동지개>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오세암>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작은 생명의 큰스님>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탁월한 스님이 들려주는 마음속의 생들>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키우미 지혜동화>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성월 큰스님>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승연이 소림사 가다>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스님은 황금굴 메고 어디로 갔을까?>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항가로운 부처님 나라>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아름다운 우리사찰 13가지 숨은이야기>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어린이 법구경>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어린이 천수경>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엄마 따라 절에 가자>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엄마랑 아빠랑 절에 갔어요>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왕눈이 스님>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절마다 이야기 구구절절>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참 좋은 이야기>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항가로운 부처님 나라>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하순홍 지음, 은하수> (임기훈 글/그림, 불교민화사) <이승연 지음, 호미> (김영만 지음, 다림) <이승연 지음, 다림> (이승연 지음, 다림) <이규성 지음, 운주사> (이규성 지음, 운주사) <이항복 지음, 밀알> (이항복 지음, 밀알) <김호성 지음, 불광> (김호성 지음, 불광) <김광호 지음, 혜성출판사> (김광호 지음, 혜성출판사) <홍주연 지음, 기교> (홍주연 지음, 기교) <정수일 지음, 운주사> (정수일 지음, 운주사) <이승우 지음, 해와나무> (이승우 지음, 해와나무) <불경 스님 지음, 동쪽나라> (불경 스님 지음, 동쪽나라) <이승연 지음, 동쪽나라> (이승연 지음, 동쪽나라)	<서두를 때 서두르면>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느릴 때는 얼마든지 느려도 좋다>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세계의 종교-불교>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소통 줄는 아이들>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기공불사전>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왜 사는가>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영어로 읽는 법구경>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차나 한잔 마시게>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청소년을 위한 명상 이야기>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정미지 지음, 불광> (정미지 지음, 불광) <수미 편지 지음, 해바라기> (수미 편지 지음, 해바라기) <최서진 지음, 시공사> (최서진 지음, 시공사) <프레데릭 헨즈 지음, 황금가지> (프레데릭 헨즈 지음, 황금가지)	<4대 본 부처>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부처님 생애>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부처, 그 삶과 사상>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부처-깨닫지 못한 등불>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불타 석가모니-그 생애와 가르침>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불교상식 100문 100답>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불교학 개론 강의실>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불교학개론>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도법 스님 지음, 호미> (강간기, 부처님 세상) <나카무라 하지메 지음, 무우> (장 부미숙 지음, 시공사) <와타나베 쇼코 지음, 동쪽나라> (정승석 지음, 민족사) <정휘옥 지음, 정승> (고양교재편찬위원회, 동국대학교출판부) <마성 스님 지음, 불광> (최순우 지음, 학교재) <최순우 지음, 학교재> (최순우 지음, 학교재) <최순우 지음, 학교재> (최순우 지음, 학교재) <최순우 지음, 학교재> (최순우 지음, 학교재) <최순우 지음, 학교재> (최순우 지음, 학교재)	<불교신행공덕>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왕초보, 불교부터 시작>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유쾌하게 읽는 불교>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인간 분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인도도 간 부처>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하룻밤에 읽는 불교>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보리책의 불교강의>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불교 수행법과 나의 체험>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여러 꽃이다>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삼승삼강으로 떠난>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선방일기>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성철 스님 시공 이야기>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선방 가는 길>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솔몽생연>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숫타피타>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스님이야기>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실천적 불교사상>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역사 속의 한국불교>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오세암>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육조단경 읽기>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인도불교>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초의>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출가(마음을찾아서)>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디베트 역사산책>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디베트 사자의 서>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홍로 사는 즐거움>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화>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화> (하오경자 지음, 예림당)	<한승원 지음, 김영사> (유영관 지음, 동아사이) <김기원> (김기원 지음, 예림당) <파도마 삼바바 지음, 정선세계사> (정선세계사 지음, 정선세계사) <정승석 지음, 민족사> (정승석 지음, 민족사) <유정환, 동승> (유정환 지음, 동승) <김광호 지음, 김영사> (김광호 지음, 김영사) <김정호 지음, 예림당> (김정호 지음, 예림당) <김정호 지음, 예림당> (김정호 지음, 예림당)

www.jinryeo.com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우리 곁에서 영가천도를 1~2초에 원격(遠隔)으로 하고 있는
고차원의 영적(靈的)초능력자 윤정주 원장의 체험이야기!

우리가 하는 생각(生覺)이 육체를 통해서 창조되는 기(氣:마음 에너지)와 영혼과의 관계

모습없이 다가온 사람들의 실체

저 자 : 尹丁倣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인체(人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마음 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이 다가온 사람들의 실체」는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의 크고 작은 아픔과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놓았다.

이 책을 통하여 진여(眞如)수련원 윤정주 원장의 신비(神秘)로운 기(氣:마음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느껴 보시고 체험해 보신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묘법(妙法)과 신비(神秘)를 밝힌다.

도서출판 **슈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